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몇가지 안내드립니다.

물론 잘 아시는분들도 계시지만, 지난 2016년 7월 25일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우리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신용정보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신용정보를 집중한다는 것은 해당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대출, 채무보증, 연체 등의 정보 내역을 우리 원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전송하는 행위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양수한 채권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체라면 현재 집중해야할 채권 내역이 있으시거나, 향후에는 해당 정보가 발생할 것이므로, 여러분은 저희 원의 신용정보망에 가입하셔서 신용정보 집중 업무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신용정보 제재금이 부과되며, 향후 감독기관의 감독 대상이 되오니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신 대부업체는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셔야합니다.

아울러, 진행하셔야 하는 절차, 관련 규정, 향후 업무처리 방안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신용정보원에서는 지난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혹시나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9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아직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신 업체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은행회관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이며,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정도 소요됩니다. 주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도 모쪼록 풍요롭게 보내시고,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에 은행회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대부업권 담당자 올림

문의전화 : 02) 3705 - 5928, 5914